

# 회초리 든 옹골찬 위인이 필요하다. 지금 시대에도

## ♣️ 싸리나무 이야기 (1)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등의 단어가 낯설지 않다.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도 변했다. 중년층에게 유년시절 체벌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이가 많다. 그 시절의 체벌은 가히 폭행이었다. '사랑의 때'라는 고상한 말은 사전 속에서 잡자는 귀중품이었다. 학교마다 '미친 개' '똥돼지' '악어' '독사'가 즐비한 동물농장이었다. 집에는 술 취한 아버지가 살림살이와 어머니와 자식을 한풀이의 대상으로 여기며 폭력을 휘둘렀다. 학교와 가정에서 벌어진 체벌과 폭행은 아스라한 역사이기도 하고 드물게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싸리나무는 과거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나무였다. 싸리나무는 생활용품으로 변신해서 가까이 있었다. 한 폭의 민속화를 장식하는 초가집과 사립문은 정하게 정겹다. 사립문은 싸리로 엮어 만든 문이다. 나지막하게, 경계하지 않게 만든 대문이다. 거부가 아니라 그냥 밀고 들어오면 된다. 무엇이든 담아 두고 말리는 소쿠리와 채반의 재료도 싸리다. 농사지을 때 필요한 삼태기, 술을 거를 때 쓰는 용수, 아이들이 오줌 싸면 소금을 얻으러 갈 때 쓰는 키(본래 용도는 곡식과 돌을 고를 때 쓴다), 병아리가 매의 습격을 받지 않도록 지은 병아리둥우리, 고기 잡는 발의 재료도 싸리다. 무엇보다 용도가 많았던 싸리 빗자루. 전방에서 근대생활을 한 사람들은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무지무지하게 많은 양의 싸리 빗자루를 엮었을 것이다. 싸리는 가장한 목수가 필요로 하는 나무가 아니라 아무나 엮어 생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가늘고 탄력 있는 나뭇가지다.

가혹하지 않으면서 탄력이 필요한 게 회초리다. 싸리나무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아 가며 지란 아이들은 안다. 회초리의 위압과 효과를, 잘못을 저지르면 선생님과 부모는 회초리를 만들어오라고 한다. 아이들은 사립문을 나서서 자신이 지은 잘못과 맞을 회초리의 굵기를 재어가며 싸리 가지를 꺾는다. 물론 되도록 가늘고 짧은 걸로 꺾어온다. 그러나 혼육의 효과는 이미 거기서 성공했고, 끝났다.

속종 때 암행어사로 많은 일화를 남긴 어사 박문수(1691~1756)도 싸리 회초리와 인연이 깊다. 어사의 임무를 피고 깊이 있고 동네가 있는 곳은 모두 찾아다니며 민생을 살폈다. 암행어사는 요즘으로 치면 감사원 감사위원 혹은 청와대 사정담당관쯤 될 것이다.

그러던 중 한 번은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들어섰는데 아무리 걸어도 점점 산중이 앞을 가로막고 인가가 나오지 않았다. 조바심이 난 박 어사는 길을 재촉하였으나 갈수록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드디어 해가 지고 사방이 어두워지며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어디선가 짐승 우는 소리마저 들려왔다. 이리다가 짐승 밥이 되어 귀신도 모르게 죽는 게 아닌가 하고 겁이 났다. 그때였다. 저 멀리 산모퉁이에 불빛이 보였다. 박 어사는 무척 기뻐다. 불빛이 있는 곳엔 인가가 있을 것이다. 불이 반짝이는 곳을 향해서 힘써거리며 뛰어갔다.

당도해 보니 과연 조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박 어사는 사립문을 밀고 들어가 기척을 내며 방안을 향해, 산중에서 길 잃은 나그네인데 하룻밤 재워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방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이 집에는 남편이 출타중이어서 자기 혼자 있기 때문에 외간 남자를 재워 줄 수 없으니 판 곳으로 가보라는 것이다.

어사는, 이 외진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같으니 체벌 아무데서라도 재워 달라고 사정했다. 한참 망설이던 여인은, 그러면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저녁밥을 차려왔다. 시장했던 참이라 어사는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상을 물리자 여인은, 자기 집에는 방이 한 칸뿐이어서 도저히 재워 줄 수 없지만 사정이 딱해서 재워 주는 것이니 어사는 윗목에서 자고 자신은 아랫목에서 자겠다고 했다. 선비의 도리를 명심하고 절대로 판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에 비할까, 인간 세상에는 이렇게 아리따고 예쁜 여자가 없을 정도로 곱고 어여쁜 미인이었다. 말을 마치자 여인은 치마로 방 한가운데를 휘장처럼 걸어 경계를 삼고 밤이 늦었으니 주무시라고 했다.

박 어사는 너무나 예쁜 여인의 자태에 반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집을 떠난 지도 벌써 수십 개월이 넘었다.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한 지도 오래됐다. 이렇게 젊고 어여쁜 여인과 아무도 없는 외진 산골에서 단 둘이 한방에서 자게 되니 어사의 마음 속에서 욕정이 끓어올랐다. 그래서 잠결에 돌아오는 척하면서 다리를 여인의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랬더니 여인은 조심스럽게 다리를 살짝 내려놓았다. 한참 후에 잠꼬대를 하는 척하며 다시 다리를 얹었다. 그랬더니 여인은 '먼 길을 오느라 무척 고단한 모양인지 잠버릇이 나쁘군' 하면서 다시 어사의 다리를 가만히 내려놓았다. 자는 척하고 수작을 부리던 어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음음..." 하면서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팔을 펴서 여인을 껴안았다. 그러자 여인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엄한 어조로 호령했다.

"여보시오 선비님! 일어나 앉으시오. 사정이 딱해서 재워 주면 양전하게 자고 갈 것이지, 선비의 체통과 삼강오륜을 저버리고 유부녀를 농락하려들다니! 그대로 넘어



싸리나무는 과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나무였다. 초가집 밖 사립문은 싸리나무로 엮어 탄력 있어 회초리 용도로도 제격 어사 박문수도 여인에게 회초리 맞아

올려놓았다. 그랬더니 여인은 조심스럽게 다리를 살짝 내려놓았다. 한참 후에 잠꼬대를 하는 척하며 다시 다리를 얹었다.

그렇게 말하는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에 비할까, 인간 세상에는 이렇게 아리따고 예쁜 여자가 없을 정도로 곱고 어여쁜 미인이었다. 말을 마치자 여인은 치마로 방 한가운데를 휘장처럼 걸어 경계를 삼고 밤이 늦었으니 주무시라고 했다.

박 어사는 너무나 예쁜 여인의 자태에 반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집을 떠난 지도 벌써 수십 개월이 넘었다.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한 지도 오래됐다. 이렇게 젊고 어여쁜 여인과 아무도 없는 외진 산골에서 단 둘이 한방에서 자게 되니 어사의 마음 속에서 욕정이 끓어올랐다. 그래서 잠결에 돌아오는 척하면서 다리를 여인의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랬더니 여인은 조심스럽게 다리를 살짝 내려놓았다. 한참 후에 잠꼬대를 하는 척하며 다시 다리를 얹었다.

그랬더니 여인은 '먼 길을 오느라 무척 고단한 모양인지 잠버릇이 나쁘군' 하면서 다시 어사의 다리를 가만히 내려놓았다. 자는 척하고 수작을 부리던 어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음음..." 하면서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팔을 펴서 여인을 껴안았다. 그러자 여인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엄한 어조로 호령했다.

"여보시오 선비님! 일어나 앉으시오. 사정이 딱해서 재워 주면 양전하게 자고 갈 것이지, 선비의 체통과 삼강오륜을 저버리고 유부녀를 농락하려들다니! 그대로 넘어

갈 수 없는 일이나 빙글 밖에 나가 싸리 회초리를 해오시오!"

정신이 번쩍 든 어사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여인의 위압이 너무 도도해서 시키는 대로 밖에 나가 울타리의 싸리나무 가지를 뽑아 들고 방안으로 들어왔다. 여인은 어사에게 종아리를 걷으라고 명했다. 어사는 그 위압에 놀려 종아리를 걷고 여인 앞에 섰다. 여인은 어사의 종아리를 세차게 쳤다. 어사의 종아리에서는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한참 만에 매를 거둔 여인은 농문을 열고 명주를 한 필 꺼내서 그것을 찢어 피가 흐르는 어사의 다리를 감아 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 피는 부모에게 받은 귀한 것이니 한

방울도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피 묻은 이 명주는 버리지 말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사악한 사념에 사로잡힐 때 자기를 바로 잡는 신표로 삼으시오."

다음날 새벽, 박 어사는 여인이 일어나기 전에 열린 도망치다시피 그 집을 빠져 나왔다. 때문, 이르게 나 알려진 어른에게도 회초리가 필요하다.

회초리를 들 옹골찬 위인도 필요하다. 지금 시대에도. 이우상(소설가·동국대 문학과 겸임교수)



##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 특별판매

현불삼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중의 근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마색 80그램 | 율케이스 | 전질2인쇄

현대불교  
현 불 삼 02)2004-8215

##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걸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격외진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